

“지역 인재 육성”... 지방대 의대, 지역 학생 선발 의무화

관련 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일정비율 선발... 의전원도 포함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도 의무화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뉴스시스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해당 지역 대학 출신 학생 일정 비율 선발도 의무화된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선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지방 로스쿨과의약계열 전문대학원에 해당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은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하면서 많은 대학이 권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기준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

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권고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 고교생의 지방대 의대·치대·약학대 등 진학이 수월해지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대학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없어 대학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는 취지에 서다. 이에 과도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영세 대학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내부 고발 이후 불이익을 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고, 소청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내부 고발자 등에 대해 징계를 반복하거나 재임용 절차를 지연하는 등 악의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다. 해당 법안은 교육위 위원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보장하고, 순차적으로 교체되도록 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만학도의 열정’... 666명 문해교육 이수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서 수여
초등 444명, 중등 222명 이수
39% 60대, 56% 70~80대

#.간담과 치매 초기 단계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매 등교 날에는 자녀가 자가용으로 등교를 시키며 계단은 업어서 교실까지 않도록 도왔어요. 평생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서현학교 학습자, 1938년생 유영하 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666명에게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학력인정서를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저학력·비문해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넘어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도록 가르친다. 과정을 다 마치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력 인정서를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사·도 교육청 중 최초로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2019학년도까지 5603명이 졸업했다. 2020학년도에는 55개 기관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등 444명, 중학 222명 등 총 666명이 학력인정서를 받는다. 학력인정서를 이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9%, 70~80대가 56% 등으로, 60~80대의 장·노년층이 95%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이들에게 학력인정서를 수여하는 명예졸업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 기관에 조회한 서울시교육감 축하 영상과 서한문을 보낸다.

학력인정서와 우수학습자 표창장도 등기로 배송한다. 문해교육기관에서 자체 준비한 계획에 맞춰 대상자에게 수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시내 70개 기관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많은 성인들이 읽고 쓰기의 기쁨을 누리게 도울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19일 인하대 국제학부 1기 졸업생들이 김학일 국제학부장을 비롯한 교수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인하대 국제학부, 졸업생 22명 첫 배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인재
인하대학교 국제학부가 지난 19일 제 1기 졸업생으로 중앙아시아 출신 인재 22명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카자흐스탄 학생 2명, 우즈베키스탄 학생 20명 등이다.

21일 인하대에 따르면 국제학부는 국제적 인재를 지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이 학제간 융합지식과 열린 사고방식, 언어능력 및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이외 전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국제학부는 성장을 거듭했다. 설립 초기 국제경영학 단

일전공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대다수였으나, 현재 국제경영학, 융합시스템공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 등 3개 전공으로 확대돼 총 21개국 4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김학일 국제학부장은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길 희망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융합학문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제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계속해서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 2014년 10월 국내대학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타슈켄트 인하대(Inha University in Tashkent)’를 설립, 한국의 우수한 대학교육을 중앙아시아에 수출해 오고 있다.

/이현진 기자

문길주 前 과학기술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경영학박사 받아

고려대학교는 19일 오후 3시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삼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 원장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한국의 환경공학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ST 원장 재임 시 여러 과학기술분야의 융합연구를 도입하는 등 KIST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특히 현재 융합대학원과 에너지환경대학원으로 운영되는 KU-KIST스쿨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동북 지역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연합해 ‘홍릉포럼’을 만들었고, 이는 홍릉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정되는 구심점이 됐다.



(왼쪽부터) 정진택 고려대 총장, 문길주 전 KIST원장, 이진한 고려대 연구부총장 겸 대학원장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려대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교육자로서도 대학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2016년부터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했다. 이러한 공로들로 문길주 전 KIST 원장은 과학기술훈장 응비장(2006), 생산성경영대상 연구경영부문 대상(2013) 등을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세종연구원 김학주 한동대 교수 특강

세종대학교와 세종연구원은 18일 공동으로 서울 세종호텔에서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를 초청해 ‘2021년 돈의 거품은 어디로 넘칠까’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김 교수는 “현재 자산가격 거품을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은 과잉 저축”이라며 “자산가격 거품이 생길수록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동일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더 저축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제도권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라면서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투기라고 이야기했고, 가격 변동성이 심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학교법인 덕성학원, 새 이사장에 이면재 변호사 선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18일 열린 ‘2021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면재 이사(사진)를 학교법인 덕성학원 제1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 임기는 3월1일부터 2023년2월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면재 덕성학원 신임 이사장은 1961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으며 서



울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제26기로 수료했다.

/이현진 기자